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 1 | 제156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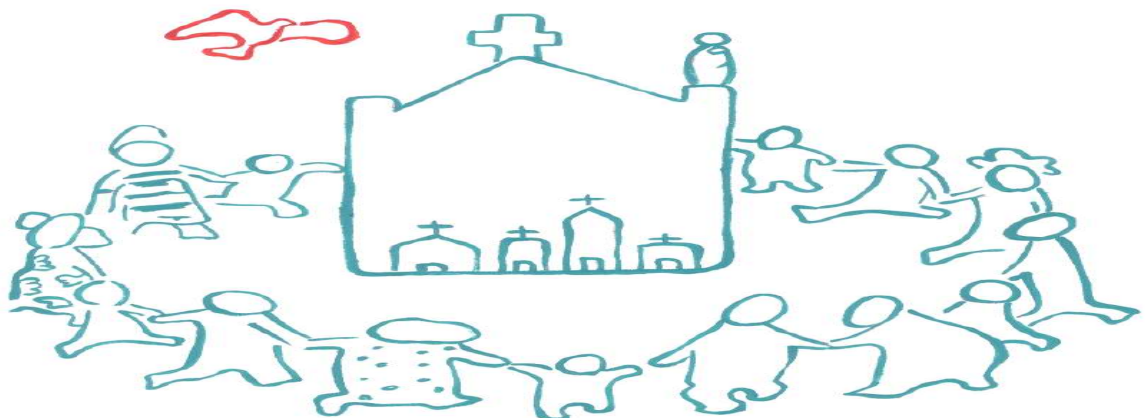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주님 세례 축일(1월 9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 3,15-16,21-22)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4번 "나자렛 성가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5절 ~ 26절까지, 21절 ~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루카 3,16)

많은 사람에게 칭송 받던 세례자 요한도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3,22)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당시 세례자 요한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 그 자체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인들 속의 한 사람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속에 계신 것이죠. 하느님이 죄인과 함께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배려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면 이는 비참함입니다. 왜 하느님이 죄인들 속에 있어야 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 속에 함께 섞여 있어야 하죠. 그 자체가 비참함 이죠.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 라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지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은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 순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 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들려온 소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를 받은 사 람들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내려가라고, 자신이 낮추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 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4번 "나자렛 성가정"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연중 제2주일(1월 16일)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1)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1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7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복음 나누기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요한 2,4)

성모님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잔치 상황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길 청합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서는 무엇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물독에 물을 채워라 (요한 2,6)

물독에는 물이 채워져야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채워지길 바라십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지만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기체가 됩니다. 반대로 1도까지는 액체지만 0도가 되어야 고체가 됩니다.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완성은 순식간입니다.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 완성을 못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종들이 마지막 여섯 번 째 돌 항아리의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중간에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이 가끔 보였더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만일 두 번 째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저 바닥 밑에서 부터 포도주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면 좀 더 쉽게 순종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일의 완성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가 봅니다.

물을 채우는 듯 보였지만, 그 종들은 순종과 인내를 하며 마지막 항아리의 아귀까지 채우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때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복음 나누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림동본당 구역분과장 이나영 (베로니카)

저희 사림동본당은 인근의 반송, 명서동, 사파동 3개 본당의 신자들이 모여 2015년 5월 30일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본당 소공동체는 9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2개의 남성 소공동체를 포함하여 20개의 소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각 구역별로 당번일을 정하여 성당 청소와 미사 안내, 전례 등을 함께 했습니다. 또 본당 교우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면 남성 소공동체도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는 등 친교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간 감사 노트 일기 쓰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에 감사함을 깨닫고, 소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도 복음화를 모범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소공동체 활동이 중단되자,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는 교구보와 주보를 전달하여 본당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드 코로나가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고,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 관계로 소공동체 활동을 비롯한 여러 사도직 단체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당 신부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빈첸시오 이웃돕기 모금을 마련하여 본당 주보성인인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과 겸손의 삶을 본받아 어려운 시절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이웃을 도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며 따뜻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느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잘 이겨내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우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와 단체 - 상호보완적 관계

| 소공동체가 하기 어려운 일은 단체에서 맡습니다.

소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레지오의 고유한 신심활동, 청년활동, 노동사목, 여성연합회, 주일학교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떤 단체나 연합회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체 모임들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소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본당 단체들은 소공동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 단체에서 하던 일 중 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공동체에 맡깁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이나 병자 방문 같은 사목활동을 단체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동네의 환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자주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방문합니다. 세례 때에 받은 평신도 사도직으로 이런 활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방문하거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꼭 어떤 단체에 소속될 필요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소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 소공동체와 단체는 형제 관계입니다.

본당 단체들과 소공동체들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과 겸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단체들마다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활성화 하는 데 모두가 협력하되 그들의 활동을 소공동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범위로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체 구성원도 지역 소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큰 단체에 소속된 단체 구성원일지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소공동체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 됩니다. 어느 구역에서든지 세례 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소공동체 구성원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큰 단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 소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